

# 경제발전의 원동력, 산업역군을 기억하자



대한산업보건협회 상임감사 / **최명량**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과거는 반복된다(조지 산타야나, 미국 철학자)”는 말이 있다. 2014년 오늘 미디어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한국’이라고 강조하듯 말하고 있지만, 불과 반세기 전에만 해도 전쟁의 폐허 속에 ‘끝없는 절망’과 ‘굶주림’으로 대표되는 것이 한국의 자화상이었다.

세계 최빈국 중의 하나였던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나? 다시 말해 누가 대한민국의 오늘을 있게 했는가? 그들은 다름 아닌 별다른 일자리가 없는 한국을 떠나 낯선 이국땅에서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을 흘려가며 일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어머니들이다.

1963년, 서독 광부로 파견되어 4천 미터 갱도에 들어가 별다른 장비 없이 지열을 견디며 석탄을 캔 8천여 명이 넘는 우리들의 아버지가 있었다. 또한 1966년부터 서독 간호사로 파견되어 중환자실 등 어려운 일을 마다하지 않고 일한 1만 3천여 명의 어머니가 있었다. 이들이 송금한 돈은 총 1억불에 달했다.

1965년부터 1973년까지 벌어진 월남전쟁에 참전해서 희생된 사람들은 5천여 명이다. 또한 1970년대에 1차 오일쇼크를 경험하면서 불기 시작한 ‘중동 건설 붐’으로 인해 1975년 해외진출 건설업체 수는 현대건설 등 32개사에 달했다. 그 당시 한 집 건너 한 집씩 중동 건설현장으로 아버지를 배웅했다. 벌어들인 외화는 월남전에서 7.5억불, 중동건설 현장에서 205억불이라 한다.

그 당시 해외로 파견된 우리들의 어머니, 아버지는 피땀으로 모은 ‘달러’를 한국으로 송금했다. 그 송금된 돈들은 국가산업발전의 ‘초석’이 되었고 경제대국으로 가는 결정적인 ‘원동력’이 되었다.

1970년대에는 농가의 80%는 초가집이었고 그나마 전기가 들어오는 집도 20%이었다. 그만큼 가난했다. 지금은 어떤가. 2011년부터 4년 연속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했고, 우리나라에서 만든 반도체, 자동차, 선박, 휴대폰, 가전 등은 세계 최고로 인정받고 있다.

이렇게 '산업화 주역'이었던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는 '산업 근로자'에서 이제, '노인'이 되었다. 이들의 22%가 노인성 고혈압, 당뇨, 뇌혈관, 심장질환, 치매로 고통 받고 있다. 또한 '노인 장기 요양보험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 노인도 6% 밖에 되지 않고 대부분은 가난에 시달리고 있다. 사회적 상황은 어떤가, 존경은커녕 노인을 무능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으며 행복 지수는 138개국 중 90위(2014년 6월 美 갤럽조사)다.

'근로자의 건강'을 위해 노력해 온 우리 '산업보건인'은 과거의 '산업 근로자'를 기억해야 한다. 오늘날 우리나라를 경제대국으로 이끈 과거의 '산업 근로자'를 보살피지 않으면 '현재'의 근로자들도 미래에는 고통 받을 수 있다.

협회는 고령화된 60~70대 산업노장들의 건강증진과 질환예방에도 힘을 쏟을 것이다.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노인 건강을 위한 정책 개발에도 노력할 것이다.

이 일을 위해 협회는 그들이 희생한 것처럼 사명감을 가지고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며 고객만족, 신뢰, 친절도를 높이는데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 🍀